

東武公의 形象觀과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

宋 一 炳*

The Morpho-Imaganary Viewpoints of Lee Je-ma and the Morpho-Imaganary recognition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ng Il-byung**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Lee Je-ma creat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rom the insight of different congenital formation of Viscera which was based on his own Morpho-Imaganary recognition of human beings.

The basic principles to understand human be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human beings are morphologically figured based on the human nature. The Second, Morpho-Imaganary recognition was the understanding to all the things including human with the rule of society and the relationships.affairs-mind-body-objects.

The Morpho-Imaganary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re as follows. The firs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cognize the symptoms and diseases as the aspect of structure and function at the same time. The second, it recognize the symptoms and diseases with the viewpoint of Change.

초 록

1. 연구목적

東武 李濟馬公은 그의 의학 연원을 四象人의 臟腑性理와 外形을 얻어 의학을 완성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體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質辨證에 體形氣像과 容貌詞氣의 取象辨證 방법을 제시하며 形證을 이용한 氣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어 東武公의 形象觀을 정확히 이해하고 四象醫學에서 形象醫學精神을 파악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동무 철학의 바탕이 되는 事心身物論的 形象觀은 『周易』의 形과 象에 대한 인식과 유학에서 『詩經』의 物有則의 정신과 『中庸』의 誠과 物에 대한 爲物不二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東武公의 形象觀의 배경을 『周易』, 『詩經』, 『中庸』, 『周子全書』, 『格致彙』, 『東武遺業』,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內經』, 『東醫寶鑑』의 形象醫學精神과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3. 연구결과 및 결론

위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東武公의 形象觀은 『周易』의 儒敎的 解析의 導入過程에서 나왔고 『中庸』에 나타난 覆物, 載物, 成物에 대한 四象의 확대 해석과 『周易』의 取象 정신과 『中庸』의 '爲物不貳'의 정신을 발전시킨 人性人形의 배경에서 이루어진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이다.
2. 『周易』은 天地人을 陰陽으로 해석하여 數理, 卦象을 통해 事物의 變化와 吉凶을 인식하는 陰陽的 形象觀이나 東武公은 裡理表象의 四象的 要約精神으로 事物을 설명하는 四象의 形象觀이다.
3. 『中庸』은 人性을 誠으로 보고 이를 物性까지 확대하여 인간과 우주를 설명하는데 東武公은 이를 발전시켜 人性人形의 形象觀을 완성하고 人性을 臟腑性理로 발전시켜 인간의 몸과 우주의 본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4. 東武公의 形象觀 요약 정신에는 大小遠近의 차별 정신과 構造와 機能의 요약 정신이 있으며, 裡理의 性理나 表象의 物象에서도 事心身物的 구조와 기능의 요약 정신이 存在한다.
5. 『內經』의 形象醫學精神은 陰陽論的 인식 방법을 통해 氣와 形을 인식하며 氣裏形表를 언급하나 이를 체계화하지는 못했으며 人의 구분에서도 陰陽과 氣血의 多少를 통한 인식방법과 五行에 근거한 五態人論的 인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6. 『東醫寶鑑』의 形象醫學精神은 『黃庭經』의 영향을 받은 道家的 시각에 근거한 形과 氣중심의 「身形篇」精神이 있고 傷寒의 病證과 기타 病證에서 形證病證 개념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7. 이제마는 사심신물적 形象觀을 醫學에 도입하여 형상의학을 완성하였고 體質과 體質病證을 機能과 構造의 발현적 정신으로 설명하고 병리에 대한 同出一屬의 原因的 속성과 病證의 輕重緩急에 대한 객관적 變靜動化를 直觀的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8. 東武公의 形象觀은 기존 陰陽論的 二分法的 설명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裡理와 表象에서 모두 事心身物的 四象的 要約 精神으로 事物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I. 序 論

東武 李濟馬公은 그의 의학 연원을 “영추서(靈樞書)에 나오는 太少陰陽人論은 略得外形했지만 未得臟理라 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前人之述로 因하여 우연히 四象人 臟腑性理를 얻어 壽世保元을 著書하게 되었다”고 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와 外形을 얻어 의학을 완성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體質 辨證에 體形氣像과 容貌詞氣의 取象辨證 방법을 제시하고, 少陰人 泛論에서 “表病證의 太陽陽明之發熱形證을 통하여 陽氣의 進退強弱을 짐작하고 裏病證의 太陰少陰之自利形證을 통하여 冷氣의 聚散輕重을 알 수 있다”고 말하여 形證을 이용한 氣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性理와 外形, 象과 形, 氣와 形證을 통해 東武公의 形象觀을 엿볼 수 있으며 四象人의 體質證과 體質病證에서도 形象醫學精神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東武公의 形象觀이 성립되는 배경과 특징을 파악하고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을 살피기로 한다. 이를 위해 동무 철학의 바탕이 되는 유학의 『周易』, 『中庸』의 形과 象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것이 東武公의 形象觀으로 변화하는 특징과 의학에 적용되는 과정을 『格致藁』, 『東武遺藁』,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東武公의 形象醫學과 『內經』 및 『東醫寶鑑』의 형상의학을 비교하여 사상의학의 특징을 살피고 형상적 시각을 통한 사상의학 병증 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儒學의 形象觀

東武는 「格致藁」 「反誠箴」의 太極에서 「中庸」, 「大學」, 「易」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유학을 근간으로 우주와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을 전개해가며 그의 形象觀도 유학에서 그 배경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形과 象에 대한 유학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그의 형상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학의 形과 象¹⁾에 대한 개념은 『周易』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²⁾ 『周易』은 象과 數를 통해 天地人의 변화를 설명한다. 주역은 원래 유교 경전은 아니었으나 『中庸』의 저자인 자사학과에 의해 유학으로 흡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子思學派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禮記』 중 表記, 坊記, 緇衣에서 『易』이 최초로 인용되는 것과 「十翼」 중 「彖傳」과 「象傳」은 모두 中을 표준으로 설명하고 있고 「繫辭傳」과 「文言傳」은 『中庸』 후반과 동시대 동일한 학파의 저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³⁾. 역의 유교화가 子思學派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무공 철학에서 『易』과 『中庸』이 미친 영향으로 미루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中庸』은 후반부에서는 誠으로 모든 것을 귀결시켜 人道의 기초에서 우주 원리까지 해석하며 誠되

- 1) 象의 개념에 대해 馮友蘭은 ‘象은 기호 논리학에서 말하는 變項(Variables)과 비슷하다. 이 변항은 구체적인 한 사물의 집합 또는 수많은 사물의 집합에 대입시킬 수 있다.’라고 그의 저서인 『中國哲學史』에서 밝히고 있다.
- 2) 주역이 유교인가 도교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주역이 초기의 점술서에서 유학화되는 과정을 아울러 살펴 보고자 한다.
- 3) 이는 『中國思想史』의 내용을 인용함을 밝힌다. 武內義雄, 中國思想史, 여강출판사, 서울, 1987, P102

려 노력함으로 화복이 닥칠 때 先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周易』의 「繫辭傳」에서 「易」其至矣乎! 夫「易」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 知崇禮卑, 崇效天, 卑法地, 天地設位而「易」行乎其中矣. 成性存存, 道義之門.」라 하여 '易은 성인이 德을 높이고 業을 넓힌 것으로 천지의 변화가 행해짐은 智와 禮가 性에 보존되어 道가 나오는 것과 같다'는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子思의 後學에 의해 「易」과 「中庸」이 儒學의 범주에서 해석되어 誠으로 人性에서 物性까지 영향을 미치며 中과 和를 통해 卜筮를 하지 않고서도 福을 구한다는 철학체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동무공이 '善行則 命數自美也 惡行則 命數自惡也 不必卜筮而可知也'라고 언급하는 것과 같은 정신이다.

「易」과 「中庸」은 周敦頤의 「太極圖說」과 「易通」으로 이어져 인간 도덕을 우주 현상까지 확대해 하나의 생성 조화의 원리로 일관시켜서 설명하게 되며 이는 「易」과 「中庸」를 주로 하는 二程의 「易傳」 「二程遺書」등을 통해 窮理盡性, 事理一致, 體用一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人性과 우주현상의 인식은 유학에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동무공의 事心身物을 통한 人間과 宇宙의 해석 정신과 知行을 강조하게 되는 東武公의 철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⁴⁾.

1) 『周易』의 形象觀

『周易』⁵⁾은 八卦를 근본으로 이루어진 64卦를 다시 上經과 下經으로 나누고 여기에 十翼 즉, 「象傳」上下, 「象傳」上下, 「繫辭傳」上下, 「文言傳」, 「序卦傳」, 「雜卦傳」의 10편을 합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周易』에서 形과 象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자. 「繫辭傳」에서는 象과 形을 구분하여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⁶⁾라 하여 하늘에서 象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形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 '見乃謂之象 形乃謂之器⁷⁾라고 象과 器를 구분하여 드러남을 象이라 하고 나타남을 器라 이르기도 한다. 또한 道와 器를 대비하여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⁸⁾라 하여 形으로부터 그 이상을 道라 이르고 形으로부터 그 이하를 器라고 보았다.

程頤는 「易傳」 序에서는 '至微者理也, 至著者象也, 體用一源'라 하여 지극히 은미한 것은 理致이고 지극히 드러나는 것은 象이며 體와 用이 한 근원임을 理와 象을 대비하여 理가 드러나는 것을 象으로 설명하고 있다. 「易序」에서는 '極其數 以定天下之象 著其象 以定天下之吉凶'라 하여 數를 지극히 하여 천하의 象을 정하고 그 象을 드러내어 천하의 吉凶을 정한다고 하였다.

「易說綱領」에서 張閔中에 대한 程子의 대답에서는 '理無形也 故因象以明理 理見乎辭矣 則可由辭以觀象 故曰得其義 則象數在其中矣'라 하여 이치는 형체

4) 그러나 현세의 醫者들이 이러한 동무공의 기본적인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인식은 무시한 채 각 개인의 나름대로의 잣대만으로 사상의학을 말하고 있다.
 5) 易의 作者에 대해서는 伏羲氏가 처음 八卦와 64괘를 그렸으며 周의 文王이 卦辭를 짓고 周公이 爻辭를 짓고 孔子가 十翼을 만들었다고 한다. 周나라 때에 만들어졌다 하여 「周易」이라고 칭한다.
 6)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動靜有常, 剛柔斷矣. 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 「繫辭傳上」一章
 7) 見乃謂之象 形乃謂之器 「繫辭傳上」一章
 8)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繫辭傳上」十二章

가 없기 때문에 象으로 인하여 理를 밝혔으며 理는 辭에 나타나니 辭로 인하여 象을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有是理則有是象 有是象則其數 便自在這裏'라 하여 理가 있으면 象이 있고 象이 있으면 그 數가 곧 그 속에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周易』에서는 理, 象, 數를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理는 지극히 은미한 것이고 理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象이며 그 틀이 形인 것이다. 象과 形을 더욱 구분한다면 象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드러나는 것 즉, 보이지는 것을 象이라 하고 形은 형이하학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을 形이라고 한다. 이러한 形과 象에 대한 생각은 동무에게도 영향을 주어 本體論에서도 형상관을 통해 그의 철학을 설명하며⁹⁾ 『周易』에서 道와 器, 象과 器를 구분한 것에 반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卷之 一의 第一統에서 '天者天下所成之局也, 人者一人所作之器也.'라 하여 局과 器를 설명하고 四象人의 性情을 少陰人은 '樂局大而喜器直'으로 太陰人은 '喜局大而樂器直'으로 설명하는 구절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卷之二의 第二統에서는 '理者物之源也, 文者理之著也'라 하여 이치는 物 즉 形의 근원이고 글은 이치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서술도 찾아 볼 수 있다.

『周易』에서의 卦를 중심으로 象, 卦辭, 爻가 중시되었으나 후대에 와서는 數에 天干地支를 배속하고 이를 五行과 연결하여 卜筮에 응용함으로써 卦나 象이 중시되기도 五行의 數理로 발전하여 明理論

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반해 東武公은 易에서 理가 드러나는 形과 象의 정신을 취하여 數가 아닌 象을 중시한 철학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2) 『中庸』의 形象觀

『中庸』은 원래 禮記에 들어 있었으며 司馬遷이 『孔子世家』에서 子思의 所作이라 하였다. 程頤가 '中庸解'를 한 후 그의 문인들이 많이 註하였으며 朱子가 諸家의 설을 종합하여 『中庸章句』와 『大學章句』를 지어 유교의 경전으로 삼았다. 2장에서 19장까지는 中과 和와 性, 道, 教에 대해 언급하며 20장 이후에서는 誠을 중시하여 언급한다¹⁰⁾.

『中庸』의 26장에서 '故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 博厚所以載物也 高明所以覆物也 悠久所以成物也 博厚配地 高明配天 悠久無疆 如此者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 天地之道 可一言而盡也 其爲物不貳 則其生物不測'이라 하여 誠을 중시하여 誠이 無息하여 오래되면 徵驗이 나타나고 徵驗이 나타나면 悠遠, 博厚, 高明하게 되어 載物, 覆物, 成物하게 된다고 하였고 천지의 도는 誠이라는 한마디 말로써 다 할 수 있으니 물건됨이 변치 않으며 물건을 넘어 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誠이 쉽없이 오래되어 드러나면 징험이 나타나며 이는 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朱子의 '中庸章句序'에서 『中庸』의 形象觀을 찾아 볼 수 있다. '人莫不有是形 故雖上智 不能無人心

9)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10) 이를 근거로 저술의 시기를 16장을 제외한 2장에서 19장까지를 문장의 간결함과 내용의 소박함을 근거로 子思의 저작이나 子思 문인의 편찬으로 보여지며 『中庸』의 후반부는 진에 들어온 후 자사학파가 『中庸』을 해설한 문장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武內義雄著 『中國思想史』 驪江出版社 1987년 「易의 儒教化」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亦莫不有是性 故雖下愚 不能無道心¹¹⁾라 하여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비록 上智라도 人心이 없지 않고, 性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비록 下愚라도 道心이 없지 않다' 하며 形과 性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中庸章句序의 註釋에서는 '天生蒸民 有物有則 物乃形氣 則乃理也'라 하여 하늘이 백성을 낳음에 有物有則인데 物은 形氣이고 則은 理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卷之一 第四通에서 '天生萬物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으로 서술하는 東武公의 人性人形 有物有則의 形象觀으로 발전하는 단서가 된다.

또한 『中庸』에서는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라 하여 '天下至誠이어야 그 性을 다할 수 있으니 그 性을 다하면 능히 사람의 性을 다할 것이요 사람의 性을 다하면 능히 物의 性을 다할 것이요 物의 性을 다하면 천지의 化育을 도울 것이요 천지의 化育을 도우면 天地와 더불어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 하여 人의 性을 다하여야 物의 性을 다하여 天地에 참여함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人性을 확대하여 物性까지 미치는 것으로 즉 人性을 우주관으로 확대하는 가치관을 낳는다. 이는 『中庸』의 25장에서 '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是故君子 誠之爲貴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知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라 하여 '誠은 物의 終始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事物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君子는 성실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誠은 스스로 자기만을 이룰 뿐이 아니요 남을 이루어 주니 자기를 이룸은 仁이요 남을 이루어 줌은 知이다. 이는 性의 德이니 內外를 합한 道이다.'라고 하여 人性으로 心身뿐만이 아니라 事와 物 즉 사심신물의 인간과 우주현상까지 설명하는 동무공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와 같이 『中庸』의 性과 形에 대한 사고는 동무공의 人性人形의 형상관에 영향을 주었으며 人性을 物性까지 확대하여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정신을 동무공은 人性으로 心身뿐만 아니라 事物까지 적용하는 사상적 인식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2. 東武公의 形象觀

동무공의 형상관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格致叢』,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 등의 저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人性人形의 形象觀

먼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¹²⁾을 살펴 보면 卷之一, 第四統에서는 太極, 兩儀, 四象의 本體觀을 정의하는 구절에서 동무공의 형상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天生萬物 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 謂之太極.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謂之兩儀.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11) 蓋嘗論之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不同 是以 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 然 人莫不有是形 故 雖上智 不能無人心 亦莫不有是性 故 數下愚 不能無道心 二者 雜於方寸之間而 不知所以治之 則危者愈危 微者愈微 而天理之公 卒無以勝夫人欲之私矣. 『中庸章句序』

12) 이는 1984년 7월 28일 '延邊朝鮮族民族醫藥研究會'에서 영인한 서적으로 東武公의 저술로 추정된다.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一洪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動化者謂之四象.'으로 '하늘이 만물을 생함은 有物有則이니 인간에서는 人形은 物이고 人性은 則이다.' 하여 人形은 人性으로 인하여 나타남을 설명하여 人性人形의 形象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中庸章句序」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物과 則 즉, 人性과 人形이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일러 太極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1〉 東武公의 形象觀

裡理			表象
太極	兩儀	四象	四象
人性人形 (有物有則)	性-知(性用) 形-行(形用)	知-舒(決) 卷(覺) 行-進(動) 退(止)	決 - 貌言視聽 覺 - 辨思問學 動 - 屈放收伸 止 - 魄魂心意

2) 臟腑性理의 形象觀

이 人性人形의 형상관은 「醫源論」에서 「東醫壽世保元」의 저술 배경을 서술하는 것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余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 壽世保元'라 하여 사상인의 장부 性理를 얻어 四象醫學을 밝히게 됨을 서술하고 있다. 人性人形의 形象觀을 철학에서 의학에 적용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 臟腑性理임을 밝히고 있다. 이 臟腑性理는 體形氣像의 人形과 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등의 형상으로 나타나 사상인 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3) 本體論에서의 理와 形의 形象觀

「格致藁」, 「反誠箴」의 太極에서는 李濟馬의 모든 사고가 함축되어 인간과 사회와 우주를 논하는

〈표 2〉 「格致藁」, 「反誠箴」의 理와 形

理			形
中庸之道	一身立誠 於昊天之下	乾兌部位	形於上
大學之德	萬物同胞 於大地之上	坤艮部位	形於下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必在於我	離震部位	形於左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必在於他	坎巽部位	形於右

그의 本體論을 엿볼 수 있는데 東武公은 理와 形을 빌어 本體論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주와 인간관을 一身立誠, 萬物同胞, 整齊知行之術, 平均財祿之權으로 나누어 '一身立誠 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 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上 坤艮部位 所以形於下也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位 所以形於左也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坎巽部位 所以形於右也'라 하며 中庸之道, 大學之德, 知行, 財祿의 理가 上下左右에서 形으로 나타남을 서술하고 있다. 一身立誠은 中庸의 道를 하늘 아래에서 행하니 乾兌가 위에서 나타나며 萬物同胞는 大學의 德을 땅 위에서 행하니 坤艮이 아래에서 나타나며 整齊知行之術은 이치가 왼쪽에 있고 술이 나에게 있으니 離震이 왼쪽에서 나타나며 平均財祿之權은 이치가 오른쪽에 있고 권세가 반드시 다른 이에게 있으니 坎巽이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理와 形의 드러남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또한 「東武遺稿」의 「八卦箴總論」에서는 '格致藁舊本'에서 나타나는 구절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反誠箴」 太極의 이전 형태로 보여지는 구절로 '乾兌智也, 其理行乎未來, 而誠僞之辨, 蓋取諸象也. 坤

艮仁也, 其理行乎過去, 而善惡之辨, 盖取諸象也. 离震義也, 其理行乎知行, 而賢不肖之辨, 盖取諸象也. 坎巽禮也, 其理行乎祿財而, 貧富貴賤之辨, 盖取諸象也.'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八卦箴을 다시 理와 象으로 요약하여 仁義禮智의 理가 過去, 知行, 財祿, 未來에서 행해지며 그 象이 善惡, 賢不肖, 富貴貧賤, 誠僞로 나타남을 설명하며 八卦箴의 내용을 총괄하고 즉, 仁義禮智의 理가 善惡, 賢不肖, 富貴貧賤, 誠僞의 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格致藁」 「反誠箴」의 내용과 같이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東武遺稿」 「八卦箴總論」의 理와 象

理		象
乾兌 智	理行乎未來	誠僞之辨
坤艮 仁	理行乎過去	善惡之辨
离震 義	理行乎知行	賢不肖之辨
坎巽 禮	理行乎祿財	貧富貴賤之辨

4) 東武公 形象觀의 특징

(1) 象中心의 形象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무공의 形象觀은 「周易」의 理와 象의 정신과 「中庸」의 人性人形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 동무공은 특히도 性理가 드러나는 象을 중시하는 인식 체계로 발전시킨 것이다. 「周易」의 理, 象, 數가 후대에서 數에 天干地支를 배속하고 이를 五行과 연결하여 卜筮에 응용하는 五行的 數理의 明理로 발전하였으나 東武公은 象을 중

시하여 象에서 理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象을 중심으로 人間을 인식하고자 한 것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卷之二의 第四統의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夫子之周遍立於道也, 立於道者立於身也, 太陽之象也. 曾子之治平明於德也, 明於德者明於心¹³⁾也, 少陰之象也. 孟子之雄辯言於善也, 善也者善於事也, 太陰之象也. 子思之中庸行而誠也, 誠也者誠於物也, 少陽之象也.'라 하여 孔子, 曾子, 孟子, 子思의 知와 行만을 통해 四象人의 象을 구분하기도 하였다¹⁴⁾. 이와 같이 東武公은 理가 드러나는 象을 관찰하여 파악한 것이다. 또한 「東醫壽世保元」에서 체질진단의 요소로 體形氣像, 性質材幹, 容貌詞氣등도 사람의 象을 정확히 파악하는 도구로 제시하는 것이다.

(2) 四象의 形象觀

「周易」의 「說卦傳」에서는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地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라 하여 '성인이 『易』을 지음은 장차 性命의 이치를 순히 하려고 해서였다. 이 때문에 하늘의 도를 세움은 陰과 陽이요 땅의 도를 세움은 柔와 剛이요 사람의 도를 세움은 仁과 義이다.'고 하여 하늘에서는 陰陽을 땅에서는 剛柔를 사람에서는 仁義를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모두 陰陽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周易」의 形象관이 만물을 陰陽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면 사상의학은 만물을 四象의 잣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反誠箴」의 太極에서 확인할 수 있다. 「繫辭傳」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의 철학에서 太

13) 「朝醫學」에서는 治로 서술하나 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할 것이다.

14) 知行만으로 太少陰陽人을 구분하는 독특한 東武公의 인식방법을 볼 수 있다.

〈표 4〉 事心身物의 四象의 形象觀

裡理			表象
太極	兩儀	四象	四象
心	心身	事心身物	事之終始(乾兌) 物之本末(坤艮) 心之緩急(離震) 身之先後(坎巽)

極은 心이고 兩儀는 心身이며 四象은 事心身物로 설명하며 八卦를 사상인 事心身物로 다시 정리하여 乾兌는 事之終始이며 坤艮은 物之本末이며 離震은 心之緩急이며 坎巽은 身之先後로 요약하는 정신을 살펴 볼 수 있다.

東武公은 四象의 認識體系로 人間과 宇宙를 형상화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東武遺藁』의 「時色耳目」篇의 '膀胱物也 腰膂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天在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체의 面目, 胸膈, 腰膂, 膀胱과 인간 사회의 事心身物, 우주의 天人性命, 上下左右의 방위등 모든 것을 넷 즉 四象의 체계로 形象化하여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周易』은 陰陽을 통해 八卦를 이용하여 象을 설명하였다면 東武公은 八卦를 다시 四象으로 요약하여 天人性命의 우주를 설명하며 四象의 形象觀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3. 醫學의 形象醫學精神

1) 內經의 形象醫學精神

『內經』에서 形象觀은 陰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는 『內經』 인식 체계의 근간이 되는 「陰陽應象大論篇」에서 확인할 수 있다.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이라 하여 陰陽이 天地와 萬物의 근본이며 變化의 주체임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故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이라 하여 天地가 陰陽으로 인해 생기고 陽이 氣로 변화하고 陰이 形을 이루는 것으로 形과 氣를 陰陽에 의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라 하여 陽은 氣가 되고 陰은 味를 통해 形이 됨을 설명하고 氣가 形을 생산한다고 하여 形氣 위주의 形象觀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陰陽離合論」에서는 陰陽鍾鍾, 積傳爲一周, 氣裏形表而爲相成也.라 하여 三陰三陽의 經絡을 氣裏形表로 서술하고는 있으나 실제 형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靈樞·通天』편에서는 사람을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으로 구분하여 陰陽의 多少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少陰之人 多陰少陽...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少陽之人 多陽少陰... 陰陽和平之人 其陰陽之氣和... 此所以調陰陽 別五態之人者也.'¹⁵⁾ 그러나 이는 각기의 陰陽과 氣血의 多少로 인한 구분일 뿐 실제 임상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또한 각기 형상적으로

15)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瀉,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不之疾瀉, 不能移之.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腑不調, 其陽明脈小, 而太陽脈大, 必審調之, 其血易脫, 其氣易敗也.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必謹調之, 無脫其陰, 而瀉其陽, 陽重脫者, 易狂, 陰陽皆脫者, 暴死不知人也.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外, 實陰而虛陽, 獨瀉其絡脈, 則強氣脫而疾, 中氣不足, 病不起也. 陰陽和平之人, 其陰陽之氣和, 血脈調, 謹診其陰陽, 視其邪正, 安容儀, 審有餘不足,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此所以調陰陽, 別五態之人者也. 「靈樞」 「通天」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 외 『素問·金匱真言論』에서도 인간의 형상을 陰陽五行의 시각에서 인식하여 사람의 겉은 陽이고 속은 陰이며 등은 陽이고 배는 陰이며 각 장부의 음양을 배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⁶⁾. 이와 같이 인식을 인식하는 방법에서 철저히 陰陽五行의으로 인식한 것을 볼 수 있다.

2) 『東醫寶鑑』의 形象醫學精神

『東醫寶鑑』은 중국 임상 서적과는 편제에서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 중국 임상서들이 傷寒을 시작으로 醫案을 설명하는 편제로 서술되는 것에 반해 『東醫寶鑑』은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의 편제로 서술되며 그 중 內景이라는 용어는 한의학에서도 생소한 용어이다. 許浚은 「集例」에서 편제를 이처럼 완성하는 배경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형상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臣勤按人身內有五藏六府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以成其形而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故道家之三要釋氏之四大皆謂此也黃庭經有內景之文醫書亦有內外境界之圖道家以清靜修養爲本醫門以藥餌鍼灸爲治是道得其精醫得其粗也」라 하였다. 人身을 살피에 안으로 五藏六腑가 있고 밖으로 筋骨肌肉血脈皮膚가 形을 이루고 精氣神이 藏府百體의 主로 道家之三要和 釋氏之四大가 이것을 이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黃庭經』과 비교하여 『黃庭經』에 內景之文이 있고 醫書에는 內外境界之圖가 있다 하여 道家 書籍인 『黃庭經』의 편제와 人身에 대한 인식 체계를 근간

으로 하여 도입한 것이다.

「內景」의 「身形篇」에서는 形과 氣를 중심으로 언급한다. 「形氣之始」의 대목에서는 『乾鑿度』의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우주 발생 순서를 언급하면서 「夫太易者未見氣也, 太初者氣之始也, 太始者形之始也, 太素者質之始也」라 하여 氣가 나타나고 形이 나타나고 質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며 氣와 形이 구비된 후에 萬物이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釋氏의 地水火風의 「四大成形」과 『靈樞·天年』의 내용을 인용하여 人氣盛衰에 따른 形의 변화를 설명한다. 또한 「形氣定壽夭」의 단락에서는 「形與氣相任則壽不相任則夭」라 하여 形氣를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病證의 인식에서 形證 개념을 도입하는데 寒門의 傷寒을 설명하면서 太陽形證用藥, 陽明形證用藥, 少陽形證用藥등으로 각각의 形證用藥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 痺病形證, 破傷風形證, 暑病形證, 霍亂形證등에서 각 질병의 形證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의 形象醫學精神은 『黃庭經』의 영향을 받은 道家的 시각에 근거한 形과 氣중심의 形象醫學으로 病證에서 形證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3)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

(1) 構造와 機能의 形象醫學精神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은 人性人形의 形象觀을 醫學에 적용하여 臟腑性理를 근간으로 病證 및 治療까지 완성한 것이다. 臟

16) 人亦應之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言人之臟腑中陰陽, 則臟者爲陰, 腑者爲陽. 肝心脾肺腎五臟皆爲陰.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六腑 皆爲陽 ……故背爲陽, 陽中之陽心也. 背爲陽, 陽中之陰肺也. 腹爲陰, 陰中之陰腎也, 腹爲陰, 陰中之陽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脾也, 此皆陰陽表裏, 內外雌雄, 相輸應也. 故以應天之陰陽也. 『素問·金匱真言論』

腑大小의 性理에 의해 呼吸出納의 氣의 움직임과 體形氣像의 形象의 특징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四焦病證이 형성되며 각 체질별로 구조와 기능적 속성에 의해 발현되는 병증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少陰人은 腎大脾小한 臟腑性理로 出放之氣가 많고 納積之氣가 적으며 기운이 陷降하는 특성으로 기능적으로 胃寒하고 구조적으로 下陷하는 病證의 특징을 지닌다. 體形氣像은 膀胱之坐勢盛壯 而胸襟之包勢孤弱한 특징을 지녀 四焦的으로 臍下가 氷冷한 병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治療는 下陷된 기운을 상승시키고 陽煖之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少陽人은 脾大腎小한 臟腑性理로 納積之氣가 많고 出放之氣가 적어 橫升하는 기운의 특성을 지녀 기능적으로는 火熱病證의 속성과 구조적으로는 裏熱病證의 특징을 지닌다. 體形氣像은 胸襟之包勢盛壯 而膀胱之坐勢孤弱한 특징을 지녀 四焦的으로는 胸膈이 烈火한 病證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치료는 火熱을 해소하고 陰清之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

용한다.

太陰人은 肝大肺小한 臟腑性理로 吸聚之氣가 많고 呼散之氣가 적어 放降하는 기운의 특성을 지녀 기능적으로는 燥熱病證의 속성과 구조적으로는 裏熱病證의 특징을 지닌다. 체형기상은 腰圍之立勢盛壯 而腦顛之氣勢孤弱한 특징을 지녀 四焦的으로는 小腸之中焦가 窒塞如霧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치료는 燥熱을 풀어주고 呼散之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太陽人은 肺大肝小한 臟腑性理로 呼散之氣가 많고 吸聚之氣가 적어 直升하는 기운의 특성을 지녀 기능적으로는 血液俱耗한 病證의 속성과 구조적으로는 下虛上實한 病證의 특징을 지닌다. 체형기상은 腦顛之起勢盛壯 而腰圍之立勢孤弱한 특징을 지녀 四焦的으로는 胃脘之上焦가 散豁如風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치료는 상승되는 기운을 하강시켜 주고 吸聚之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東武公은 각 체질이 지니는 형상적 특성을 病證 및 治療까지 적용하며 病證의 인식에서도

〈표 5〉 四象人의 病證의 構造와 機能的 屬性

	臟腑大小	呼吸出納	升降	病證		體形氣像	四焦病證	治療
				機能	構造			
少陰人	腎大脾小	出放多 納積少	陷降	胃寒病證	下陷病證	膀胱之坐勢 盛壯 胸襟之包勢 孤弱	臍下 必如氷冷	陽煖之氣 下陷되는 氣를 上升
少陽人	脾大腎小	納積多 出放少	橫升	火熱病證	裏熱病證	胸襟之包勢 盛壯 膀胱之坐勢 孤弱	胸膈 必如烈火	陰清之氣 火熱 해소
太陰人	肝大肺小	吸聚多 呼散少	放降	燥熱病證		腰圍之立勢 盛壯 腦顛之起勢 孤弱	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呼散之氣 燥熱 해소
太陽人	肺大肝小	呼散多 吸聚少	直升	血液俱耗病證	下虛上實病證	腦顛之起勢 盛壯 腰圍之立勢 孤弱	胃脘之上焦 散豁如風	吸聚之氣 上升되는 氣를 下降

항상 구조와 기능을 같이 살펴보는 병증 관리 정신을 찾아 볼 수 있다.

(2) 變靜動化의 形象醫學精神

사상의학의 병증 관리 방법은 병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물론이고 항상 그 병증이 속하는 범주 즉, 자리 매김을 정확히 하고 치료 방향의 최소한의 단서를 파악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 현재의 병증이 어떻게 변화하며 병증 관리에서 유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곧 病證의 同出一屬 등의 속성을 밝혀 病證의 특징과 정확한 자리 매김을 하고자 하는 것과 항상 病證의 輕重緩急과 順逆의 구분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정신이다. 예를 들면, 少陰人 裏病에서 痞滿, 黃疸, 浮腫이 同出而證이나 輕重이 있다고 한 것이나 少陽人의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의 五證은 同出一屬而自有輕重이며 浮腫 喘促 結胸 痢疾 寒熱往來 胸脇滿의 五證은 同出一屬而自有輕重이라고 한 것은 病證 속성에 따라 범주를 구분짓는 것이다.

소음인의 太陽病과 陽明病의 汗出을 熱氣와 寒氣의 상태로 구분하고 太陰病下利와 少陰病下利를 溫氣와 冷氣로 구분하는 것들이 病證의 정확한 자리 매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少陰人病의 急證과 吉證의 단서를 언급하는 것 등은 病證 관리의 최소 지표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少陽人에서 受病之初證이나 易見之初證을 설명하는 것은 病證의 變化象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병증 관리 정신이다.

이러한 同出一屬證과 輕重緩急 初中末證의 구분은 病證에서의 變化 즉, 病證의 象과 變化 양태를 파악하여 조절하는 것으로 「易」의 變易를 파악하는 정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結 論

이상에서 東武公 철학의 바탕이 되는 事心身物의 形象觀은 「周易」의 形과 象에 대한 인식과 東武公의 形象觀의 배경을 「周易」, 「詩經」, 「中庸」.

<표 6> 病證의 同出一屬과 輕重緩急의 구분

少陰人				少陽人					
4大病		6大病		裏病 3大證	表病 5大證	裏病5大證		裏病 3大證	
太陽證	順證	陽明證 少陰證	急用藥	痞滿	浮腫	中風	不可期必	調養爲主 服藥次之	下消
陽明證	逆證	太陽病 厥陰證 太陰病 陰毒證	預用藥	黃疸	喘促	吐血	可以期必		服藥調養 則其病易癒
太陰證	順證				痢疾	嘔吐			
少陰證	逆證	太太陽病 胃家實 太太陰病 黃疸證	大用藥	浮腫	寒熱往來 胸脇滿	腹痛	食滯痞滿	上消	
順逆關係		正氣⇌邪氣		同出一證而有輕重	輕重에 따라 服藥 및 調養攝生				

『周子全書』, 『格致彙』, 『東武遺藁』,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內經』 및 『東醫寶鑑』의 形象醫學精神과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東武公의 形象觀은 『周易』의 儒敎的 解析의 導入過程에서 나왔고 『中庸』에 나타난 覆物, 載物, 成物에 대한 四象의 확대 해석과 『周易』의 取象 정신과 『中庸』의 '爲物不武'의 정신을 발전시킨 人性人形의 배경에서 이루어진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이다.
2. 『周易』은 天地人을 陰陽으로 해석하여 數理, 卦象을 통해 事物의 變化와 吉凶을 인식하는 陰陽의 形象觀이나 東武公은 裡理表象의 四象의 要約精神으로 事物을 설명하는 四象의 形象觀이다.
3. 『中庸』은 人性을 誠으로 보고 이를 物性까지 확대하여 인간과 우주를 설명하는데 東武公은 이를 발전시켜 人性人形의 形象觀을 완성하고 人性을 臟腑性理로 발전시켜 인간의 몸과 우주의 본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4. 東武公의 形象觀 요약 정신에는 大小遠近의 차별 정신과 構造와 機能의 요약 정신이 있으며, 裡理의 性理나 表象의 物象에서도 事心身物的 구조와 기능의 요약 정신이 存在한다.
5. 『內經』의 形象醫學精神은 陰陽論的 인식 방법을 통해 氣와 形을 인식하며 氣裏形表를 언급하나 이를 체계화하지는 못했으며 人의 구분에서도 陰陽과 氣血의 多少를 통한 인식방법과 五行에 근거한 五態人論的 인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6. 『東醫寶鑑』의 形象醫學精神은 『黃庭經』의 영향을 받은 道家의 시각에 근거한 形과 氣중

심인 「身形篇」精神이 있고 傷寒의 病證과 기타 病證에서 形證病證 개념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7. 東武公은 事心身物的 形象觀을 醫學에 도입하여 형상의학을 완성하였고 體質과 體質病證을 機能과 構造의 발전적 정신으로 설명하고 병리에 대한 同出一屬의 原因的 속성과 病證의 輕重緩急에 대한 객관적 變靜動化를 直觀的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8. 東武公의 形象觀은 기존 陰陽論의 二分法的 설명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裡理와 表象에서 모두 事心身物的 四象의 要約 精神으로 事物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參 考 文 獻

1. 武內義雄著, 中國思想史, 여강출판사, 서울, 1987년
2. 馮友蘭, 中國哲學史, 형설출판사, 서울, 1985년
3. 成百曉譯註, 懸吐完譯 周易傳義,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8
4. 成百曉譯註, 懸吐完譯 大學·中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1
5. 經書, 古典文學研究院
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신일문화사, 서울, 1972년
7. 李濟馬, 格致彙, 덕흥인쇄소, 함흥, 1940년
8. 原人手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연변조선민족의약연구회, 1984년
9.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서울, 1989년
10. 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1년
11. 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1년
12. 朝醫學, 연변조선민족자치주민족의약연구소, 1985년